

## 일개 초등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 실시 후 흡연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경민, 이충원\*

### Change of Attitude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towards Smoking after Smoking Prevention Program

Kyung-Min Park, Choong-Won Le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ee change of attitude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 toward smoking after two months of a smoking prevention program in 445 students of 4-6th grade of a primary school in 2002. The result were as follows:

1. Male students were 53.3% and More than half of parents' attainment of education were high school and 22.0% of the mother were fully employed. Nine male students experienced smoking while none of the female students did. Current smokers were 52.3% in fathers and 2.0% in mothers.
2. Student reported that passive smoking is not good for health were 91.1% before the prevention program but after the program they were 93.5% ( $\chi^2=5.78$ ,  $p=0.019$ ).
3. Yes to "smoking of the students is bad" was 86.4% before the program but changed to 91.4% ( $\chi^2=11.78$ ,  $p=0.008$ )
4. Students reported that they will try to smoke after becoming adults were 10.6% before the program but the proportion reduced to 26 students (5.9%) ( $\chi^2=20.65$ ,  $p=0.0001$ ). Twenty one students did not changed their attitude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5. Students reported that they will not try to smoke despite peer pressure were 87.2%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Nineteen students changed their attitudes from "will try" before the program to "will not try" after the program ( $\chi^2=20.65$ ,  $p=0.0001$ ).
6. Parents' attitudinal changes after the smoking prevention program noted markedly in "know the health effects of passive smoking", "recognize seriousness of the current smoking situation in Korea", and "agree for initiation of the smoking prevention program by the school".

We propose based on these results that:

1. Many kinds of smoking prevention programs suitable for the primary schools should be developed in linkage with the programs for the middle and high schools.
2. Active change of attitudes by the school employees as well as parents of the students are needed to implement smoking prevention program more properly.
3. Various kinds of smoking preven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pplicable for both schools and community as well.

**Key Words:** Smoking prevention program, Attitudinal changes, School and community program

## I. 서 론

담배의 독성이 우리 인체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김, 1995)<sup>4)</sup> 이러한 위험은 언제 흡연을 시작했느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뇌세포를 비롯한 모든 세포들이 성장, 성숙하는 시기인데 흡연효과에 의한 저산소혈증과 혈관계 이상으로 순환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성장장애나 기능발달의 저하가 동반하므로 어려서 피우기 시작한 담배는 그 흡연자의 신체, 정신적 발달에 장애요소가 된다(Fielding, 1992)<sup>19)</sup>.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또한 크다(박과 이, 1989; 이, 1995)<sup>8)10)</sup>.

미국은 담배를 의존성 약물로 분류하여 정부와 민간 차원의 적극적 운동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는 1989년 성인 남자의 흡연률은 68%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흡연률은 6%, 청소년 흡연률은 24%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처음 흡연을 경험한 연령이 예년의 중·고등학생 시기와는 달리 현재는 초등학생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흡연 경험이 8.0%(강과 서, 1995)<sup>11)</sup>였으며, 지(2000)<sup>14)</sup>의 연구에서도 4~6학년 중 흡연 경험이 7.5%로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된 흡연이 중,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점차 습관성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중학생에서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학생이 20.5%나 되었다(이와 이, 2002)<sup>12)</sup>.

청소년기의 흡연은 음성적으로 몰래 이루어지고 습관화되기 때문에 중독 되기 전에 발견하여야 하며 예방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겠다. 예방 교육의 가장 수월한 접근이 학교 차원에서의 예방 교육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체계화된 예방 교육 과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미 흡연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흡연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흡연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인식시키고 흡연에 대한 태도 및 가치를 함양시켜 흡연율의 감소와 금연 유도를 목적으로 고안된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효과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아직 습관적으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흡연관련 행사를 통하여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에게는 4~6학년 당 학년별로 4시간씩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는 흡연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과 가정통신문을 통한 교육, 아동과 함께 참여하는 각종 행사를 통한 예방 교육(김, 1997; 박, 1994)<sup>27)</sup> 등 학교환경, 아동, 부모를 연계한 흡연예방프로그램을(Cohn, 1990; Epstein, 1996)<sup>17)18)</sup> 실시한 후 흡연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 II. 연구대상 및 방법

대상자는 경상북도 소재 1개 초등학교에서 2002년 4월부터 5월까지 2 개월간 4~6학년 학생 전수, 445명을 대상으로 학교환경 조성, 4~6학년 당 학년별로 4시간씩 흡연예방교육을 실시 및 이 아동들의 학부모에게는 흡연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과 가정통신문을 통한 교육, 아동과 함께 참여하는 각종 행사를 통한 흡연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초등학생들과 부모의 흡연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고자 실시한 단일 군 전후 실험설계를 이용한 원시실험연구이다. 흡연에 대한 일반적 분포는 백분율과 빈도를 구했으며, 흡연예방프로그램 전과 후의 흡연에 대한 태도 변화는 McNemar검증을 실시하였다(Petrie, 1987)<sup>20)</sup>.

이 연구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흡연예방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환경조성

#### (1) 금연 건물 선포 및 흡연구역 설치

학교건물 내에서 교직원의 금연 준수활동 전개 흡연 구역, 금연구역 설치 학교 내 모든 건물을 금연 건물로 지정하여 4곳에 (중앙 현관문입구, 중앙 뒤 현관, 급식소 현관, 보건실 현관)스티커를 부착하였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고 흡연자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옥외 한 곳(중앙 뒤 현관과 급식소 현관 사이)을 흡연 구역으로 설치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철저한 준수를 위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 (2) 흡연예방 활동 환경판 제작

보건실 복도와 3층 강당 앞에 [담배연기 없는 학교]라는 환경판을 제작하여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표어 포스터 작품을 게시했다.

#### (3) 교문 앞 현수막 제작

[아빠가 지킨 금연 우리가족 행복보장] 현수막을 제작하여 교문 앞에 걸어두어 등·하교시 아이들 및 교직원을 비롯하여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홍보활동 실시하였다.

#### (4) 결의대회 및 가두캠페인 실시

아동과 담임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운동장에서 결의 대회를 가졌다. 결의 대회 후 [담배는 마약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 부모님 담배 피우지 마세요]라고 새겨진 어깨띠와 흡연 관련된 피켓을 들고, [담배는 싫어요] 홍보지를 준비하여 학교 주변 상가 및 아파트 일대를 돌면서 지역주민 및 학부모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5) 학교행사를 통한 흡연 예방 교육

#### ① 금연의 날 행사실시

5월 31일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금연에 관한 글짓기, 표어,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실시하고 우수작품은 시상하였다. (각 부분별 최우수 2명, 우수 6명, 장려 6명)

#### ② 흡연예방 전시회 실시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과제물로 낸 흡연예방 가족신문, 표어, 포스터 그리기에서 우수 작품과 폐암, 폐기종 생체 표본,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병에 대한 패널을 강당에 1주간 전시하여 흡연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③ 종합학예회 발표 시 흡연예방관련 표어, 포스터 전시회를 실시

④ 학예회 발표 시 동극 발표: 동극주제: [담배는 싫어요]

### (6) 어린이회 활동

흡연예방활동을 위하여 어린이회 임원을 중심으로 6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학교 내 담배꽁초 줍기,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하는 직원감시 활동을 꾀고 결과를 점검표에 기록하였다.

## 2. 아동에게 직접 실시된 흡연예방교육

4~6학년당 학년별로 4시간씩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방법은 강의, Video tape 및 OHP를 이용하였다.

### <흡연예방교육내용>

교시	제목	구체적인 내용
1	흡연의 피해 알기	담배의 성분과 흡연의 피해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2	건강한 생활: 올바른 약의 선택과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 알기	약물의 올바른 선택 중 담배를 피우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3~4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활기찬 생활을 위한 방법 알기	또래 집단의 중요성과 담배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방법

## 3. 아동과 학부모와 함께 하는 흡연예방운동

### (1) 흡연예방 가족신문 만들기

아동과 함께 하는 금연가족 신문을 만들어 우수작품은 시상과 함께 전시를 하였다

### (2) 흡연 관련 교육자료 대여

부모의 흡연으로 고민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흡연

에 관련된 자료(비디오 테이프, 책자, CD, 인터넷사이트 소개, 니코틴 의존도 검사지 등)를 대여하고 대여 후 가족의 반응에 대하여 아동과 상담을 실시하였다.

### (3) 어머니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 실시

본교 아동 및 교직원 학부모의 흡연 실태를 조사한 결과와 흡연예방 솔선수범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 (4) 작품 전시회 및 흡연 관련 패널 전시 참가

흡연 예방관련 표어, 포스터 그리기 대회의 우수작품,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관한 패널 전시회(2회-학부모 교육 시, 종합 학예발표회 시)를 통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흡연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 (5) 가정통신문 발송

월 1회에 걸쳐 흡연에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의 흡연 예방운동 및 금연 운동 실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6) 학교 신문에 활동 게재 :** 학교 신문 기사를 통해 아동을 위한 학부모의 흡연예방 운동을 유도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대상자의 인구학 및 흡연관련 특성

연구 대상자는 445명으로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 아동이 53.3%를 차지하여 여아보다 많이 차지하였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 분포는 고졸이 55.5%,

중졸이 23.9%, 대졸이상이 18.4% 및 초졸이 2.2%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 분포는 고졸이 50.6%, 중졸이 32.9%, 대졸이상이 9.0% 및 초졸이 7.5%순으로 나타났다. 90.0% 이상이 경제수준이 중 이상이라고 응답했으며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가정이 48.65로 나타나 경제적 환경 여건은 높다고 사료된다.

4~6학년 445명의 아동 실태 조사 분석결과(표 2)

&lt;표 1&gt;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45(100%)

특성		수 ( % )
학년별(학년)		
4	4	145 ( 32.6 )
5	5	148 ( 33.3 )
6	6	152 ( 34.1 )
성별	남	237 ( 53.3 )
	여	208 ( 46.7 )
부 교육정도수준	초졸	10( 2.2 )
	중졸	106( 23.9 )
	고졸	247( 55.5 )
	대졸이상	82( 18.4 )
모 교육정도	초졸	33( 7.5 )
	중졸	146( 32.9 )
	고졸	226( 50.6 )
	대졸이상	40( 9.0 )
경제수준	고	31( 7.0 )
	중	405( 90.9 )
	저	9( 2.1 )
모 직업	유	98( 22.0 )
	무	347( 78.0 )

&lt;표 2&gt; 흡연 관련 특성

N=445(100%)

변수		n ( % )
담배를 피워 본 경험	남	9 ( 3.8 )
	여	0 ( - )
가족 중 흡연하는 사람*	부	233 ( 52.3 )
	모	9 ( 2.0 )

\*: 가정통신문을 통해 부모로부터 응답받았음

담배를 피워 본 경험은 남자아이들은 3.8%, 여자아이들은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전국 7.5%(지, 2000)<sup>14)</sup>에 비하여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이 연구 대상자의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아동이 22.0%를 차지해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현재 3.8%의 흡연율이라도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흡연율이 20.0%이므로 흡연의 심각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

가족 중 흡연하는 사람 중 아동의 아버지가 52.3%, 어머니가 2.0%로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우리나라 전국 68.0%에 비하면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 2. 흡연예방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흡연에 대한 태도에 대한 사전조사에서 간접흡연이 피해를 준다고 응답한 아동이 91.1%였으나 흡연 예방프로그램 실시 후 조사에서는 93.5%로, 실시 전 '아니오'라고 응답한 아동이 실시 후 피해를 준다고 응답하여 10명(2.4%)이 변화를 보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 = 5.78$  p=0.019).

프로그램 실시 후에도 29명(6.5%)의 아동이 여전히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태도가 부족하므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되리라 사료된다.

"중·고등 학생들이 흡연하는 것은 나쁘다"는 생각에 대한 응답에서 흡연예방프로그램 실시 전에는 384

<표 3> 흡연예방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간접흡연은 피해를 준다”에 대한 차이

실시전	실시후	예	아니오	$\chi^2$	p
		실수 (%)	실수 (%)		
예	실수 (%)	405(91.1)	0( - )	5.78	.019
아니오	실수 (%)	10( 2.4)	29( 6.5)		

by McNemar test

<표 4> 흡연예방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중·고등학생들이 흡연하는 것은 나쁘다”에 대한 차이

실시전	실시후	예	아니오	$\chi^2$	p
		실수 (%)	실수 (%)		
예	실수 (%)	384(86.4)	0( - )	11.78	.008
아니오	실수 (%)	23( 5.0)	38( 8.5)		

by McNemar test

<표 5> 흡연예방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보겠다”에 대한 차이

실시전	실시후	예	아니오	$\chi^2$	p
		실수 (%)	실수 (%)		
예	실수 (%)	21( 4.7)	26( 5.9)	20.65	.0001
아니오	실수 (%)	0( - )	398(89.4)		

by McNemar test

<표 6> 흡연예방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친한 친구가 담배를 권유해도 안피운다”에 대한 차이

실시전	실시후	예	아니오	$\chi^2$	p
		실수 (%)	실수 (%)		
예	실수 (%)	388(87.2)	0( - )	13.65	.001
아니오	실수 (%)	19( 4.3)	38( 8.5)		

by McNemar test

<표 7> 학부모 흡연실태 및 자녀 흡연에 관한 사전 사후 비교

질문내용	사전조사 (%)	사후조사 (%)	변화정도 (%)
(1) 흡연한다	부:52.3 모:0.0	부:51.7 모:0.0	- 0.6 0.0
(2) 자녀가 흡연한다	10.4	9.3	- 1.1
(3) 자녀가 흡연하면 강력하게 말리겠다	93.1	95.1	+ 2.0
(4) 간접흡연의 피해를 알고 있다	46.4	73.4	+ 27.0
(5) 우리나라 흡연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54.2	75.1	+ 20.9
(6) 평상시 가정에서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한다	61.4	68.4	+ 7.0
(7) 흡연예방교육 실시에 찬성한다	48.0	84.1	+ 36.1

명(86.4%)이 나쁘다고 응답했으며 사후조사에는 91.4%로, 23명(5.0%)이 “나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가 나쁘다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chi^2=11.78$   $p=0.008$ ). 이러한 태도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흡연예방교육은 흡연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흡연에 관한 중요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는 중·고등학교와 연계성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흡연예방교육을 4-6학년을 대상으로 체육 교과서 흡연예방에 관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년 당 총 4시간씩 교육하였다. 7차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4학년의 경우는 보건편에 흡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나 5, 6학년은 흡연교육이 나와 있지 않아 지속적인 흡연교육을 위해서 5, 6학년에서도 흡연 내용을 따로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과정안이 필요하다(김과 이, 1992)<sup>6)</sup>. 그리고 흡연하는 것이 중고등학생의 문제로만 태도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 볼 생각에 대한 응답에서 사전조사에서 아동의 10.6%가 어른이 되면 피워 볼 생각이라고 하였으며, 흡연 경험이 있는 아동들 9명(3.8%) 모두 어른이 되면 피워 볼 생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흡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아동들에게 더 이상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고 호기심을 해소시킬 수 있는 내용이 흡연예방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후조사에서 26명(5.9%)이 변화를 보여 유의한 차이( $\chi^2=20.65$   $p=0.0001$ )를 보였지만, 21명(4.7%)은 프로그램 실시전후 모두 흡연을 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개인 상담 및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김, 1998).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좀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상담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호교사가 상담전문교사 자격연수를 받을 수 없는 현재의 법적인 제도의 문제점이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김과 이, 1992)<sup>6)</sup>.

이 연구에서 이루어진 흡연예방프로그램에서 학예회 때 발표한 [담배는 싫어요]라는 연극은 아동들과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흡연예방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친한 친구의 담배 권유에 대한 생각에서 사전, 사후 모두 ‘안피운다’고 응답한 아동이 388명(87.2%)이었다. 흡연예방프로그램 실시 전에는 19명(4.3%)이 피우겠다고 했다가 실시 후에는 안피우겠다고 응답하여 변화를 보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chi^2=20.65$   $p=0.0001$ ). 그러나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또래와의 집단 속에서 흡연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때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진 흡연예방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흡연 예방과 흡연 교정, 청소년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지도사례, 금연을 위한 고등학생의 생활 지도사례, 청소년 흡연 실태와 대책, 중학생 흡연실태 및 대책(김, 1998; 김 등, 1992, 이, 1999; 임, 1996; 태백시 상장중학교, 1998; 황, 1998)<sup>4)(6)(11)(13)(16)(15)</sup> 등 흡연과 관련한 시범학교 운영은 중·고등학교에 국한되어 있다.

### 3. 흡연예방 프로그램이 부모의 흡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흡연 정도를 보면 1차 조사에서 아버지는 52.3%, 어머니는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에게 부모의 흡연 정도를 조사했을 때와 약간 차이를 보였고, 어머니의 경우는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 흡연)와 달리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들이 흡연사실에는 솔직한 응답을 피한 것이고, 사후 조사에서 아버지의 흡연이 변화를 보였는데 이는 가족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금연에 대한 학부모 교육에 아버지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녀의 흡연 정도는 사전조사에서는 10.4%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학부모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아직 흡연경험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후 조사에서 약간 변화를 보이긴 했지만 학부모를 통하여 가정에서도 흡연예방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자녀가 흡연하면 강력하게 말리겠다가 사전, 사후 모두 높게 나타났다. 간접흡연의 피해의 태도 정도에 대한 사전조사에서 간접흡연의 피해의 태도 정도는 46.4%로 낮은 편이었는데, 흡연을 하는 아버지가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태도 정도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사후조사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보여 73.4%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학교 환경조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준수로 담배 연기가 없는 깨끗한 환경이 이루어 져야 하며(박, 1997)<sup>9)</sup>, 흡연 경험 연령이 점차 초등 학교 시기로 낮아지고 있고 이런 아동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 습관적으로 흡연을 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놓을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에서 흡연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에서의 흡연 예방 활동 실천 및 금연 실천 전개가 중요하므로 흡연예방교육을 받은 아동과, 금연 가족신문 등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과제물을 통해 가정에서 흡연예방활동(Cohn, 1990)<sup>17)</sup>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전시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 및 가정 통신문을 이용 한 교육으로 가정에서 흡연예방실천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과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흡연관련 전시회를 비롯해 각종 행사를 실시하는 흡연예방프로그램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개발되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금연상담실 운영으로 양호교사에 대한 태도가 전환되어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좀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상담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건교사가 전문교사 자격연수를 받을 수 없는 현재의 법적인 제도의 문제점이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평상시 가정에서 자녀와의 대화 정도에 대한 사전조사에서 61.4%로 나타났으며 사후조사에서는 약간 변화가 있었다. 교육환경과 지적 수준이 포항시의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라고 하나 맞벌이 부부가 많은 관계로 자녀와의 대화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의견에 대한 사전조사에서는 48.0%의 학부모만이 학교에서의 흡연 예방교육에 찬성한다고 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흡연예방교육은 별로 중요하다고 태도하지 않은 문제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사후 조사에서는 84.1%의 학부모가 초등학교 시기부터 흡연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 및 가정 통신문 교육 등으로 학부모와 아동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흡연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주의할 점은 이 연구의 연구디자인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를 사용하였으므로, 초등학생과 부모의 흡연에 대한 태도변화를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만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를 볼 때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효과가 관찰되었다. 흡연예방에는 학교 환경조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준수로 담배 연기가 없는 폐적한 환경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흡연 경험 연령이 점차 초등학교 시기로 낮아지고 있고 이런 아동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 습관적으로 흡연을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에서 흡연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의 흡연 예방 활동 실천 및 금연 실천 전개가 중요하므로 흡연예방교육을 받은 아동과, 금연가족신문 등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과제물을 통해 가정에서 흡연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전시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 및 가정 통신문을 이용 한 교육으로 가정에서 흡연예방실천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과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흡연관련 전시회를 비롯해 각종 행사를 실시하는 흡연예방프로그램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개발되어 져야 할 것이다. 금연상담실 운영으로 보건교사에 대한 태도가 전환되어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좀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상담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건교사가 상담전문교사 자격연수를 받을 수 없는 현재의 법적인 제도의 문제점이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IV. 요약 및 제언

흡연예방을 위해 학교환경조성, 아동에게 교육 실시, 학부모 교육 등 흡연 예방 프로그램이 초등학생과 부모의 흡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상북도 소재 1개 초등학교에서 2 개월간 4-6학년 학생 전수인 4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1. 남자 아동이 53.3%, 아동의 부와 모 교육수준은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 아동의 모가 직업을 가진 경우가 22.0%였다. 담배를 피워 본 경험은 남자 아동은 3.8%, 여아는 0%였다. 가족 중 아동의 부는 52.3%, 모는 2.0%가 현재 흡연자였다.

2. 간접흡연이 피해를 준다고 응답한 아동이 사전에는 91.1%였으나 흡연예방프로그램 실시후는 93.5%로, 실시 전 '아니오'라고 응답한 아동이 실시 후 피해를 준다고 응답하여 10명(2.4%)이 변화를 보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 = 5.78$   $p=0.019$ ).

3. "중·고등학생들이 흡연하는 것은 나쁘다"는 생각에 대한 응답에서, 사전에는 86.4%가 사후에는 91.4%로, 5.0%가 "나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가 나쁘다는 태도를 갖게 되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 = 11.78$   $p=0.008$ ).

4. 사전조사에서 아동의 10.6%가 어른이 되면 피워 볼 생각이라고 하였으며, 사후조사에서 26명(5.9%)이 변화를 보여 유의한 차이( $\chi^2 = 20.65$   $p=0.0001$ )를 보였지만, 21명(4.7%)은 프로그램 실시전후 모두 흡연을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5. 흡연 경험이 있는 아동들 9명(3.8%) 모두 흡연예방프로그램 후에도 어른이 되면 피워 볼 생각이라고 응답하였다.

6. 친한 친구의 담배 권유에 대한 생각에서 사전, 사후 모두 '안 피운다'고 응답한 아동이 87.2%, 흡연예방프로그램 실시 전에는 19명(4.3%)이 피우겠다고 했다가 실시 후에는 안 피우겠다고 응답하여 변화를 보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 = 20.65$ ,  $p=0.0001$ ).

7. 부모의 태도변화가 많이 된 항목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알고 있다", "우리나라 흡연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흡연예방교육 실시에 찬성한다" 등으로 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제언 하고자한다

1. 초등학교에 맞는 다양한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이 고안되어 중·고등학교와 연계성을 가질 수 있기를 제언한다.

2. 흡연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직원 및 학부모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3. 학교와 지역사회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연프로그램이 개발 될 수 있기를 제언한다.

### 참 고 문 헌

1. 강윤주, 서성제. 초등학생들의 흡연예방교육 개입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 학교 보건학회지, 1995
2. 김미남. 보건교육이 초등학교 아동의 건강행위실험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1997
3. 김선애. 금연 프로그램의 장기 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4. 김일순. 한국인 5대 사망원인 질환의 현황과 추이, 대한의학협회지 1995;38(2)
5. 김택민, 지선하, 오희철. 고교생들이 금연교육 효과 분석, 한국역학회지 1992;14(2)
6. 김화중, 이인숙. 초등학교 보건교육 교과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학교보건학회지 1992; 3(1)
7. 박경란. 자기 기록법에 의한 건강행위 실천효과, 한국교원대학교 학교보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94
8. 박종구, 이규식. 흡연의 경제적 손실분석, 예방의학회지 1989;22(4)
9. 박현아. 금연구역, 흡연구역의 선포가 남자 직원들의 흡연양상과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10. 규식. 흡연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경험적 연구, 제8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세미나 발표, 1995
11. 이정란. 금연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남자 중학생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1999
12. 이중정, 이충원. 대구시 일부지역 중학생들의 건강관련 위험행동과 관련요인조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2; 19(3): 51-72.
13. 임소연. 금연교육 프로그램이 흡연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실업계 고교생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14. 지선하. 청소년 흡연실태 및 금연의 해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0
15. 황라일. 흡연 효과에 관한 연구-중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16. 태백시 상장중학교. 중학생 흡연 실태 및 대책, 교육부 지정 보건교육 연구학교운영보고서, 1998
17. Cohn, D. A.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the school Child development. 1990;61:152-162.
18. Epstein, L. H. Family Based Behavioral intervention for obese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1996;20:14-21.
19. Fielding JE. Smoking: Health Effects and Control. In Last JM, Wallace RB, eds. Public Health and Preventive Medicine. East Norwalk, Prentice-Hall International Inc. 1992: 715-740.
20. Petrie A. Lecture Notes on Medical Statistics. Oxford, Blackwell Scientific Publications. 1987; 120-123.